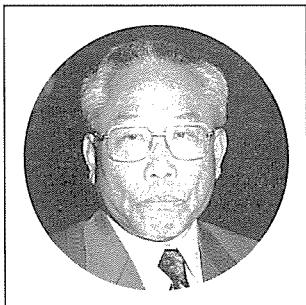


재일과학현황과 교류협력

“뒤늦은 創立 극복한 會執 활동”



張甲淳

在日한국과학기술자협회장
東海大 교수

1. 在日科協현황

1) 설립

在日韓國과학기술자협회는 在日同胞과학기술자들이 과학기술교류와 유대친목을 도모함으로써 在日同胞의 지위향상에 이바지 하고, 母國의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1983년 10월 22일 東京에서 設立되었다.

당시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불과 80여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9년이 지난 오늘 회원은 약 9백명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협회는 회원확대를 위한 조직활동과 함께 학술대회(9회) 및 분과별 세미나 개최, 논문집 회보(통권 12호)등의 발간사업, 재일동포 사회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각종사업, 국내의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 대한 인력 유치 및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2) 구성원

在日科協의 구성원은 크게 두갈래로 나눌수

있다.

첫째는, 在日同胞과학기술자들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日本법무성 통계에 의거하여 추정한다면 과학연구자 약2백명, 기술자 약 천명, 기능공 약4천명, 의료기술자 약 3천명정도로 해야될 수 있고, 그외에 생산업자, 정년퇴직과학기술인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정확한 실태는 「在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아직 충분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

둘째로, 韓國에서 온 유학생(理工農系大學院 약 천5백명), 연구원, 객원교수, 기업 등 일정한 기간이 지나거나 목적을 달성하면 본국으로 귀국하는 회원들이다. 근래에 와서 유학생의 일부는 이 고장에서 그대로 취직하여 정착하는 케이스도 점차 늘고 있다. 협회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 등에 관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박사과정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상호교류의

기회제공, 장학금 알선, 연구발표지원, 취직상담 등도 추진하고 있다.

3) 배경과 특성

在日科協을 구성하고 있는 회원들의 특성과 그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재일동포과학자들의 본국에 대한 기여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재일동포의 87%는 과거 조국을 잊었던 시대에, 그 어버이들이 타의에 의하여 이 나라에 건너와 거류하게 된 후손들로서, 지금은 2,3세가 재일동포사회의 주역을 차지하는 교차시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거의가 조국에서의 생활경험이 없으며, 이나라 사회에서 우리의 언어나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왔다.

그들은 또한, 이 사회의 부당한 차별과 편견 때문에 아주 자유도가 제한된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며, 그런 가운데 과학자, 기술자 또는 기업인으로서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민족적인 자각과 긍지를 가지고 본협회의 목적에 찬동, 참가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아직 소수에 지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在日科學者와 祖國建設

조국의 해방전후에 日本에 유학한 많은 선배 학구들이 귀국하여 조국건설에 있어서 학문과 과학기술의 기초를 닦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활약양상이 그리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들의 역할이 그다지 평가되지 못했다.

이 사회의 편견, 차별 그리고 재일동포의 남북분단과 함께, 여기서 배운 학문이 조국에서도 그다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와 일본사회의 경제위주 경향도 겹쳐서, 그후 자라난 재일동포 젊은 세대의 과학연구분야 지망의지는 점차 낮아졌으며, 이 사회에서 과학기술자들로서 높이 평가받게 되었을 경우에도 그들 가운데서 민족사회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욕을 보이는 사람은 드물게 되었다.

1965년의 韓·日國交正常化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재일동포 종소기업인들이 여러가지 형태로 자본과 기술을 모국으로 가지고 가서 韓國의 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한 바는 막대한 것이라고 본다. 이들 가운데는 아주 성공하여 나라와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일동포의 자랑으로 지목될 만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앞으로 재일동포과학기술자를 통한 일본의 과학기술이전에 있어서 그 성과적인 방법을 생각할 때, 재일동포정책 및 인식에 관하여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在日同胞科學者와 祖國分斷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은 재일동포사회를 두 동강으로 나누게 하였으며, 그 현실로 인하여 과학자들의 처신은 더욱 어렵게 되어 민족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적어졌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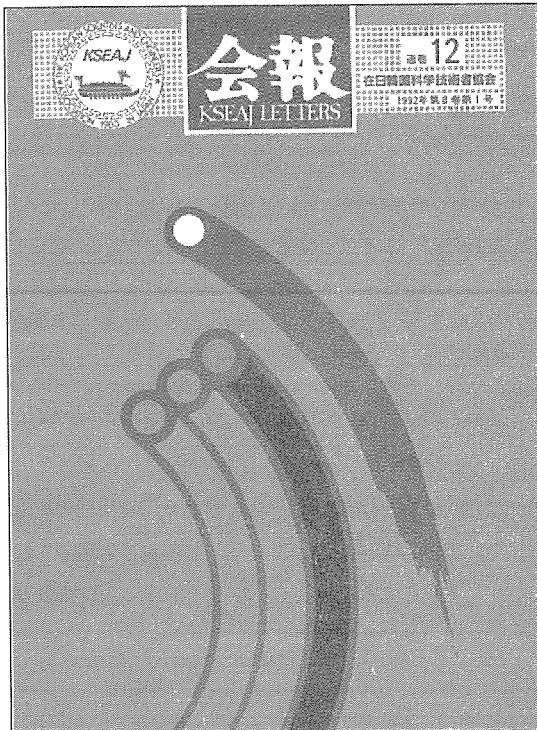
그런 가운데서 朝鮮總聯은 일찍이 재일과학자들의 사명과 역할에 주목했던 것이다. 그들은 1959년 6월에 사회과학, 자연과학, 의학을 망라한 「在日本朝鮮人科學技術協會」를 결성하였으며, 그후 1985년 7월에 과학자, 기술자, 생산업자를 분리하여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자협회」로 개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경위로 말미암아 많은 과학자들이, 그들의 민족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당시 유일한 동포과학자단체인 「朝鮮人科協」에 가입하거나 또는 간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24년이라는 긴 세월이 경과한 1983년에 어려운 상황속에서 본협회가 설립될 당시, 또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회원확보를 위한 환경이 어떠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구히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6) 日本社會環境

과거 오랜기간, 이나라의 차별과 편견의 구조는 재일동포로 하여금 대학을 졸업해도 희망하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취직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재일동포 모두가 놓인 상황이 유사



하지만, 특히 자립하기 곤란한 처지의 과학기술자로서, 동시에 한국인으로서 그 처신을 뚜렷이 하기란 매우 어려운 역경에 처해 있다.

그렇기 때문인지 유력한 집안의 우수한 자제들은 의과대학으로 많이 갔으나, 이공계의 진학은 드물었다. 극소수의 과학도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또 어려운 관문을 거쳐 취업을 했을 겨우, 그 직장에서 다시 차별과 편견에 시달려야 하고, 승진시켜 주지 않는 불평등과 함께 갖가지 굴욕을 참아야 한다. 그 굴욕을 참지못하여 태반의 이공계출신과학기술자들이 직장을 떠나 또는 처음부터 전공과는 관계없는 직업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요행히 기업이나 연구소에 현직을 두고 있을 경우일지라도 본협회의 회원으로 활약하기 위해서는 많은 위험과 제약이 따르며, 그만큼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구미제국과는 달리, 재일동포사회에서는 아직

이 나라의 국적을 획득하고 이 나라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에는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일본국적취득후라도 일반적으로 차별이 언제까지나 붙어다니며 한국출신을 몇몇이 내세우기 어려운 압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취업상의 문제점이 소위 귀화로서 일소되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여건과 비관적 측면만을 길게 늘어 놓았다고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깝고 가장 인연이 깊으면서도 경제대국이요, 기술대국인 일본의 과학기술을 배우려고 한다면, 또한 효율적으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재일동포과학기술인들이 처해있는 환경과 심정을 한국의 대일정책담당자나 기업인들은 깊이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2. 交流와 協力を 위하여

1) 在日本社會에서

韓日관계 및 재일동포사회의 전반적인 배경을 두루 살펴본다면 재일과학에 모여들고 있는 재일동포과학기술자들의 사명과 그 역할은 매우 곤란하면서도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협회는 조직화대를 위한 사업, 즉 동포과학기술인을 찾아내어 조직화해 가는 일을 가장 진요한 사업으로 간주하고 수시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도 국내의 연구기관, 기업등이 요구하는 인력유치 및 기술이전에 따르는 제반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노력하여 왔다.

이 두가지 사업은 개별적인것 같지만, 실은 서로 상호 보완하는 사업인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은 의미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의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재일동포과학기술인이 정치적이념이나 소속단체에 구애됨이 없이 오직 동포과학기술인라는 입장에서 한마당에 모이는 것이다.

원래 과학기술이 인류공유의 재산이어야 한다

면, 재일동포의 과학기술은 먼저 우리 민족전체의 재산이어야 하며, 민족사회에 참여하고, 공헌하는 역할을 수행할때 비로소 인류공유의 재산으로 되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국의 분단과 함께 재일동포사회가 두개로 갈라져 대립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지식인 일반이 그러했듯이, 과학기술인도 그 처신을 어느 한쪽으로 소속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어느쪽에도 적극적인 의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또는 동족간의 대립상태에 염증을 느껴 일본인 사회에 동화, 매몰해 버리는 예도 있다.

원래 재일동포사회는 협연, 지역(고향), 학연(전문분야), 등 횡으로 종으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외압에 의하여 교류가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그 힘이 배제된다면 과학기술인으로서 각기 전문분야의 교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이며, 성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재일동포과학기술인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발표회, 논문집 발간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 의의는 매우 큰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재일동포사회에 확산되어 갈 때, 동포사회와 인연을 끊고 있거나 또는 인연을 맺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던 과학기술인도 진정 자기실현의 기회를 찾기 위한 인간본성의 욕구에 따라, 동포과학자들이 모이는 한 마당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과학기술인의 역할이 민족사회에 기여하고 환영받을 뿐만 아니라, 일본사회,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 자극을 줌으로써 후대양성에도 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많은 과학기술인의 배출은, 재일동포사회의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더욱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구축하고, 또한 조국의 과학기술에 대한 기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믿는다.

2) 交流의 확대

재일동포과학기술인들이 이념과 소속단체의 테두리를 초월하여 교류, 협력하는 그 마당에 서울의 과학자, 평양의 과학자들이 참가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미국에서, 유럽에서, 중국, 러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는 동포과학자들이 東京의 한마당에 함께 모여 과학기술선진국으로 성장해 갈 통일조국의 꿈을 펼칠 수 있다면, 과학기술인들의 사명과 긍지는 더 높아질 것이다.

「世界韓民族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창립도 바로 여기에 그 참뜻이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3) 交流協力사업의 具體案

이상은 재일과협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의 과제와 역할의 일단이지만 국제적 시야에서의 구체적인 사업을 몇 가지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교류: 科總이 중심이 되어 해외 각지의 과협 또는 동포과학자들을 통하여 그 나라의 전문분야별 과학기술동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 종합하여 「뉴스레터」 같은 情報誌를 발간, 그것을 국내연구기관 및 해외과협에 제공하는 일이다.

둘째: 전문가간의 교류: 해외에 산재해 있는 동포과학자의 분야별 전문가가 유대강회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모여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는 tour를 조직하여 산업 및 학술연구 시찰을 실시 한다. 이 경우 그 장소 또는 목적지는 한국내로 한정하지 않고, 해외과협이 소재하는 나라를 번갈아 선택하며, 그곳 과협이 준비를 한다.

셋째: 전문프로젝트팀: 전문분야별 프로젝트팀을 국제적으로 조직하여 각 프로젝트별로 스타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계획적·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성격을 띤 재단설립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제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日本이 거점으로 되거나, 세계 각지의 동포과학자가 東京에 모일 경우, 재일과협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작정이다.